

종이비행기 48만원… 관 주도 행사비 급증

도, 올해 1회 추정 297억원 편성… 3년 전보다 48%↑
민간단체 행사 지원비는 같은 기간 18% 증가에 그쳐
도의회 “민생경제 어려운 시기… 보여주기식 자체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 이후 관 주도로 열리는 행사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재정 여건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시간 30분짜리 관 주도 행사에 수천만원을 쓰는가하면, 행사장에서 종이 비행기 400개를 날리겠다고 예산을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1회 추경을 통해 본 예산 대비 7.7% 증액한 297억60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편성했다.

행사 운영비는 제주도가 직접 개최하는 행사에 투입하는 예산 과목을 말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행사운영비는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난

2022년 200억8700만원에서 이듬해 241억600만원으로 20.0% 증가했다가 역대급 ‘세수 핑크’ (세수 결손)가 발생한 2024년에는 204억1700만원으로 15.3% 감소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는 1회 추경에 297억600만원이 편성되는 등 한해 사이 45.4% 늘어 300억원에 육박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올해 행사운영비 증가 폭은 47.9%에 달했다.

반면 제주도가 민간단체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인 ‘행사사업보조금’은 2022년 224억9800만원에서 올해 265억6900만원으로 18.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추세가 반영되다보니 올해에는 제주도 주최 행사 예산이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이날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추경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일회성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보여주기식 행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 사례로 지난 2월 열린 ‘2040 제주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과 지난달 7일 열린 ‘제주도민대학 명예학위 수여식 및 개강식’, 그달 18일 열린 ‘안전문화운동 발대식’을 거론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에는 원래 5500만원이 편성됐지만 제주도는 이중 강연료 800만원을 포함해 4000여만원을 지출했다. 또 6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예학위 수여식에는 4500만원이, 안전문화운동 발대식에는 1300만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쓰임새를 보면) 행사장 스크린에 띄울 강연자료 제작에 3000만원, 퍼포먼스 영상 제작에 3000만원, 글자 조형물 제작에 230만원, 종이 비행기 400개 제작에 48만원을 썼다”면서 “모두 한 두 시간짜리 행사였다. 종이 비행기 날리고, 풍선 터뜨리고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행사 참석자들도 대부분 관변단체 인사들”이라며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행사에 예산을 덜 쓰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정책을 도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인 효과를 줬다”며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각종 행사를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섬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했다

지난 14일 전국 최초 4시간 ‘RE100’ 달성

남은 전력 해저연계선 통해 다른 지방 송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력 사용량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전국 최초로 달성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제주지역 전력 사용량과 공급량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원만으로 충당했다.

이번 성과는 날씨 조건과 전력계통 유연성 향상이 결합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14일 강풍 특보로 인해 풍력발전 이용률이 51.8%(오후 1시 기준)까지 치솟았고, 태양광 발전도 적절한 일조량과 온도 조건으로 73.1%(오후 1시 기준)의 높은 이용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도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잉여 전력을 제1·제3해저연계선(HVDC)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송

전했다. 육지부와 제주도 연결된 해저연계선은 시간당 최대 180MW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송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도내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전력거래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위한 설비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68MW 규모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준공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양재운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성과는 제주의 RE100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이정표”라며 “지속적인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을 뜻한다.

이상민기자

도민체전 드론 연출 차량·보행 일시 통제

제주시는 ‘제59회 제주특별자치도 민체육대회’ 개최식이 열리는 18일 드론라이트쇼에 따라 제주종합경기장 드론 비행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과 보행을 통제한다. 또 경기장 인근에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해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도민체전 개최식이 열리는 18일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에서 드론 연출이 오후 8시5분부터 약 10분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드론 리허설이 열리는 17일과 개최식 당일인 18일 오후 7시35분부터 8시15분까지 종합경기장 일부 구역에서 차량 통행과 주차, 보행이 통제된다. 문미숙기자



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 16일 오전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제59회 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식에서 대회 개최지인 제주시 김완근 시장과 제주도체육회 오선홍 부회장,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이 성화를 전달하고 있다.

4~5월 개최 예정 각종 행사 잇따라 연기 도 “6월 대통령선거 영향… 기부행위 해석 우려”

다음 달 9일부터 이틀동안 열릴 예정이던 ‘2025 제주 무형유산 대전’ 행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체험과 사생대회 등 부대행사가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에 따라 행사를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 9~10일 제주 무형유산전 수교육관 등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5 제주 무형유산 대전’은 무형유산을 알리기 위해 전시와 시연, 무형유산 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행사 계획을 재수립한 후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조기 대선으로 계획됐던 각종 행사들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이달 열릴 예정이던 제12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가 3개월 순연됐고 5월 2~3일 예정된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컨퍼스타도 9월로 연기됐다. 또 2025 제주도 식품대전 with 맥주축제와 제2회 2025펜동펠링 제주올레 글로벌 어린이걷기축제도 5월에서 9월로 일정이 미뤄졌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경찰, 국가산하기관 공공횡령 의혹 수사 착수… 4면

한라일보 창간 36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JEJU ENERGY CORPORATION

H2JECO

Harmonious and Happy Better JECO

글로벌 에너지의 미래를 열다